

현대판 주거노트 — 텔레비전

박 영 근

중앙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우 리 사회에 21세기를 맞이해서 풀 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난마처럼 얽혀 있다. 이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현대 문명의 이기 중 하나가 바로 '텔레비전'이다.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사적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텔레비전은,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오래 전부터 자리잡아 왔다. 이미 천만대를 웃도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문명의 이기로서 텔레비전이 지닌 순기능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비판이 그리 많지 않은 게 우리네 현실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이 야기하는 역기능은 이미 상상을 뛰어넘어서 어두운 그림

자를 일상 생활에 던져주기 시작했다.

'주거노트'(juggernaut)는 힌두교의 신이다. 주거노트의 神像을 실은 수레의 바퀴에 깔려죽으면 극락에서 환생한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로 뛰어들어 죽는다. 행복과 불행이 양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거노트의 이중적 상징은 우리 현실 곳곳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비전의 대중화가 시작된 이래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좋은 삶든지 간에 애물단지와 신주단지의 이중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국언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매일 2시간 52분, 주부들은 3시간 33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

제는 이러한 시청 시간만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다. 즉, 불륜-이혼-선정-초호화-폭력-남자 기 죽이기 등 부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것은 시청자의 건강, 특히 청소년을 해치는 유해 식품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바깥 사정을 살펴보자. 영국의 한 법 정신의학자는 청소년 살인범의 25%가 범행을 저지르기 수일 전에 폭력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보고했다. 심리학자 반뒤라가 관찰한 결과에 기대어 보면, 폭력적 장면을 본 어린이는 보지 않은 어린이보다 두 배나 가까이 공격적 행동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약 8천여 건의 살인과 10만여 건의 폭력을 텔레비전을 통해 본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텔레비전이 어린이에게 폭력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에게는 범죄 수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하였다. 5~6세까지의 어린이는 현실과 환상의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텔레비전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청소년은 미디어를 통해 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폭력은 무서운 살인 무기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이자 경고이다.

우리나라에선 얼마 전 사법연수원 강지원 교수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2백

19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폭력물과 범죄의 상관 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텔레비전의 범죄 장면을 보고 11.4%가 범죄 충동을 느꼈고, 2.3%가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비행 청소년 135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80% 정도가 텔레비전의 폭력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극적 폭력 장면과 폭력자들의 호사스러운 생활, 손쉽게 벌 수 있는 돈 들이다. 그리고 영상이 표현하는 이미지가 강렬할수록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는 폭력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남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텔레비전의 관심은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남다르다. 텔레비전의 '순기능'이 문화 선진국답게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던 바로 그 날, 프랑스에서는 많은 고교생들이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웅기충기 앉아 있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기성 작가들을 불러다 놓고 문학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 전날 파리에서는 일백 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인 공쿠르상의 수상 작품이 발표되었다. 공쿠르 아카데미가 심사한 결과를 공개한 때와 거의 같은 시간에 지방 도시 렌에서도 '고교생'들이 심사하고 시상하는 공쿠르상을 발표했다. 올해로 9

년째인 이 '고교생 공쿠르상'은 프랑스 문화부와 교육부 등이 후원하고 프랑스 제1의 멀티미디어 유통업체인 FNAC가 행사를 주관한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중순이면 전국 13개 도시에서 뽑힌 고교생 심사위원 13명은 그 무렵 어른들의 '공쿠르 아카데미'가 뽑은 수상 후보작 10개 작품을 어른들과 똑같이 읽기 시작한다. '88년, '89년, '91년, '95년 등 네 차례나 어른 공쿠르와 고교생 공쿠르의 수상자가 맞아 떨어졌다. 언론들도 어른 공쿠르상 못지않게 고교생 공쿠르상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고교생 공쿠르상이 지닌 권위와 미래지향적 안목을 인정해 준다.

뿐만 아니다. 제1 국영 방송인 프랑스 2TV는 그날 밤 간판 교양 프로인 '자정 서클'에 고교생 공쿠르를 주제로 삼고 고교생들과 문학 인사들을 초청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전쟁과 비참, 인권과 테러, 생태계의 파괴 등 고발하는 문학의 역할이 고교생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졌다. 수상 작가를 비롯한 여러 어른들이 진땀을 흘렸다. 한국과 프랑스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이 '자정 서클'이 끝날 때쯤인 새벽 1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 시험 1교시를 치르고 있을 시각이었다.

프랑스의 텔레비전이 이처럼 문화적·교육적 기능을 해내듯이, 우리의 텔레비전도 때로는 좋은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한다. 지난 8월 24일 KBS1에서 방영

한 일요스페셜 "생물자원시대, 종이 유출되고 있다."가 그 한 예다. 이 프로그램은 농작물의 종자, 원예용 조경수, 화훼, 약용 식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중한 특산 생물과 자생 생물 종이 해외로 함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한국의 자생 식물은 2백여 종이나 된다. 그 중 95종은 새 품종으로 개발되어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다. 세계적 희귀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한국산 미선나무는 15달러, 새 품종인 분홍꽃 미선나무는 40달러에 팔리고 있다. 산딸기나무와 매죽나무가 미국의 정원수와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다. 북한이 원산지인 털개회나무가 미스킴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미국 관목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생물자원에 무관심한 정부와 국민 대중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의 역기능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애물단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즘처럼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진흙판 정국과 경제 불황에 넋더리 내는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다독겨려줄 그 무엇을 바라고 있다. 답답할 때 텔레비전에 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우리네 현실이다. 그

런데 최근 공중과 텔레비전 채널들은 국민들의 이런 기대에 등을 돌리고 있다. 방송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오락으로만 채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현실 문제를 마다하고 한순간의 쾌락을 좇고 건강한 비판력을 마비시키는 노릇을 하는 셈이다.

전에는 그래도 공영 방송은 공익성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정보화를 내건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온통 상업 방송이 판을 잡았다. '97년 춘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정기 개편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KBS1을 제외한 3개 방송이 오락을 전문적으로 방영하는 채널로 바꿨다. 특히 황금 시청 시간대에서 오락이 차지하는 편성 비율이 KBS2 73.8%, MBC 67%, SBS 73.8%로 나타났다. 가을 개편도 그 밖 에 그 나물이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는 시청료를 가구당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챙기면서 공영성과 공정성 및 국제 경쟁력을 겨냥하는 공영 방송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 계층이나 다양성의 원칙을 저버린 채, 10대와 주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형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종합 편성이니 채널 특성화는 아예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특히 드라마와 코미디가 차지하는 비율이 KBS2 39.3%, MBC 55.1%, SBS 62.6%로 나타났다.

엿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드라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제작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드라마 편수가 늘어나서 소재가 빈약하고 내용도 문제가 되어 갖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황금 시간대를 드라마가 차지해 현재 방송 3사가 일일·주중·주말·단막·특집 등 다양한 형식으로 포장해 내놓는 드라마 총수는 한 주일에 무려 30~40편에 이른다.

제작비용을 들여다 보면 엄청난 액수에 까무러칠 정도다. 일일 드라마의 경우 1회당 1천5백여만 원, 주말드라마 3천5백여만 원, 미니시리즈 4천여만 원, 사극 6천여만 원씩이나 들어간다. 방송 3사를 합쳐 일 년 동안 총 1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드라마에 쏟아붓는 셈이다. 서울방송의 44부작인 "임격정"은 40여억 원, KBS1의 120부작인 "용의 눈물"은 70여억 원, 문화방송의 20부작인 "산"은 30여억 원에 이른다. 이같은 천문학적 제작비는 정말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 드라마가 불륜-선정-과소비-폭력 등 부정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있다. 드라마는 특히 청소년을 해치는 독극물임에 틀림 없다. 국민들은 채널 선택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에 볼모가 되었다.

오락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텔레비전에서 오락이 갖는 기능은 중요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이른 시간부터 깊은 밤까지 드라마-코미디-토크쇼-스포츠 중계 등으로 줄곧 채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도대체 4개 채널에서 한 주간에

40여 편의 드라마를 내는 것도 부족해서 주말 오후를 온통 연속극 재방송으로 메우고 있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텔레비전의 유해한 환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법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7월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유해 매체의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텔레비전, PC통신, 비디오, 전자 오락, 영화, 공연, 만화, 사진, 도서 등을 총망라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러 통로를 망라한 집행력을 획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 전담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청소년 위원회'를 두고 청소년 문제를 총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 감시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 문제에 관한 한 결코 미국이나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쓰레기 문화'(trash culture)를 몰아내어 키치(kitsch)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10대 쇼는 하루빨리 케이블 전문 채널로 옮겨야 하고, 외국처럼 하루 3시간 이상씩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드라마와 코미디의 편수를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연속 방송극이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 눈

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물론 드라마는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방송위원회 심의와 방송사 자율 심의의 기준이 정반대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선정성과 불륜에 대한 다양한 잣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외국처럼 여러 가지 제동 장치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폭력과 섹스의 농도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는 문제에는 84%가 찬성했다. 하지만 그 제도가 과연 어린이들에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설문에는 30%만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영화의 등급제가 영화 속에 섹스와 폭력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부모들에게 알려주는 데 도움이 크다고 보는 의견은 52%였다. 그러나 등급제가 어린이들을 부적절한 영화로부터 멀리하는데 성공했다는 대답은 20%밖에 되지 않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게 76%나 되었다.

또한 등급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제작자나 업자들의 책임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더 농도가 짙은 섹스물과 더 심한 폭력물들이 제작되어 방영되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영화만이 아니라 비디오물도 5단계로 등급화하고 연령별로 판매 및 대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방송의 구조적 토대는 양질의 프로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지난 '95년의 경우 한국 방송공사는 전체 예산 중 31.5%, 문화 방송은 27.9%, 서울방송은 28.4%를 제작에 투입했다. 반면, 일본 NHK는 40.1%를 제작비로 썼다. 이렇게 제작비와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여건에서 시청률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는 제작진들은 저질 코미디와 폭력과 불륜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질 불륜 드라마나 코미디나 토크 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런 프로그램을 도태시킬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효과적 방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방송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성마저 부족한 편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규제의 초점을 내용에서 '편성'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처럼 매일같이 퇴폐와 저질과 불륜물을 쏟아 붓는 나라는 없다.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은 폭력만이 아니다. 그들은 저속한 코미디 프로의 선정적인 표현과 비속어를 배우고 야한 행위를 그대로 본받는다. 우리나라는 연예인들의 천국이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언행은 막무가내이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연예인들의 언행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흡수된다. TV 프로그램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TV 안 보기 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야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상품

을 불매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에서 84%의 부모가 어린이들이 보아서는 안 될 TV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얼마 전에 게재했다.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부모들은 과연 자녀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시청하도록 하는가. 그렇지 못한 게 우리네 사정이다. 지금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존중하는 미국에서조차 많은 주와 도시들이 '청소년 통금'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을 단속해서 부모가 찾아올 때까지 파출소에 있게 한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여러 곳에서 펼치고 있다.

요즈음 선진국에서 거론되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해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사회 자본을 지탱하는 두 버팀목은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신뢰감을 쌓고, 단체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도 이미 사회 자본의 감소와 그 폐해를 심각하게 겪었다. 서구에서 말하는 이른바 사회 자본의 면면은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우리의 고유한 덕목이자 기본적 정신 질서가 아니었던가?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푸트남 교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해 텔레비전이 미국의 사회 자본을 파괴하는 주범임을 지적했다. 우리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노래방, 비디오

방, 만화가계, 소극장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풍을 흉내낸 저질 코미디와 선정적 쇼와 퇴폐적 드라마, 그리고 음란한 내용으로 가득 찬 컴퓨터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방송 분위기를 바꾸는 게 급선무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하는 틀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질 오락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고, 시청률에 연연한 나머지 상업주의와 선정주의가 극성을 부린다는 점이다.

방송 분위기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 먼저 리포터의 악쓰는 소리와 먹자판으로 시작해서 불륜과 최루성 드라마(공중파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 중 15%를 드라마로 편성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시답잖은 신변잡기와 주부들의 어처구니없는 고백으로 채워지는 아침 프로그램부터 성형 수술을 해야 한다. 상업 방송의 낙원인 미국에서도 아침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뉴스와 정보가 주류를 이룬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못 본 체한다. 악순환이다. 더 이상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의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해야 한다. 미래의 비전을 주는 건강한 텔레비전으로 방향을 틀 때다. 더 이상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비판과 견제도 영향력에 비례해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과 방송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

박영근/서울대 불어불문학과와 같은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육사 교수부 외국어과 교관과 전 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지내고 현재 중앙대에 있으며, '95년부터 『교수신문』 편집 주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발자크의 연구』가 있고, 역서로는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등이 있으며, 논문은 "인간 희극에 나타난 정신과 물질의 상관 관계", "Le Grand Meaulnes에 나타난 안정과 불안정의 의미"의 다수가 있다.